

# 내안의 너 (you're part of me)

dall'album del gen verde on the other side

우리에겐 꿈이 있었어  
항상 그 꿈을 노래했지  
커져가는 벽을 바라보며  
너는 점점 멀어졌어

아무말도 할 수 없었어  
나와 다른 니가 두려워  
희미해진 너를 바라보며  
이젠 조금씩 지워버려

고향을 찾아, 형제를 찾아  
기다려온 너를 보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얼굴로  
내안의 너를 바라봐

왜 이렇게 갈라져야 하니?  
왜 우리가 아파해야 하니?  
왜 이렇게 미워해야 하니?  
왜 우리 함께 웃을 수는 없니?  
내안의 너, 내안의 너

굶주림과 고통속에  
사는 너를 바라봐  
난 아무것도 할수없어  
더이상 나완 상관없어

외면하지마. 피할 수 없어  
너를 보면 눈물이 나  
우리 서로향해 웃음지으며  
내안의 너를 바라봐

왜 이렇게...

같은 하늘 바라보며...uh-

왜 이렇게 갈라져야 하니?(내안의 너)  
왜 우리가 아파해야 하니?(내안의 너)  
왜 이렇게 미워해야 하니?(내안의 너)  
왜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바라봐

내안의 너

어렸을 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자문하게 됩니다.  
'왜 한민족인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며  
갈라져 있어야 하는지... ...?'  
은희, 서영, 주은

*We are from South Korea.  
When we were schoolchildren  
often we would sing about  
the dream of a united Korean  
people. But as we grew up, the  
divi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creased. Why  
should we be blocked by hatred  
when we are one people, living  
under the same sky?  
Clari, Bea and Colomba*